
2022년 농식품 수출 이슈조사 보고서 요약 [말레이시아]

2022. 08.

1. 말레이시아 콜드체인 현황

- 콜드체인은 신선 농수산물 또는 온도 영향에 따라 변질하기 쉬운 기타 식품류를 최종소비자까지 저온에서 저장 및 유통하여 품질을 유지하는 기술임
- 말레이시아 2021년 콜드체인 시장규모는 249억 5,700만 달러(한화 약 32조 4,441억 원)¹⁾로 추산되며, 2021년부터 2026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은 7.6%로 전망됨. 최근 5년간(2017~2021) 말레이시아의 콜드체인 식품 수출입 규모가 안정적으로 증감함에 따라 콜드체인의 발전도 상당히 빠름
- (수출) : 2021년 기준 말레이시아의 콜드체인 농식품 수출액은 최근 5년간 7.0% 증가하여 24억 8,880만 달러(한화 약 3조 2,354억 원)를 기록함
- (수입) : 동년 말레이시아의 콜드체인 품목 수입액은 5년간 5.0%의 증가 추세를 보이며 54억 6,009만 달러(한화 약 7조 981억 원)에 달함. 주요 수입품목은 낙농품과 어류·갑각류임
- 2021년 기준 말레이시아의 전체 식품 유통채널의 규모는 약 143억 7천만 달러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은 -3.3%임
- 소매상 유통채널이 97.6%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017년 이후 5년간 연평균 3.3%의 감소율을 보였음. 대표적인 오프라인 매장 체인으로는 7-Eleven, Econsave, Lotus's 등이 있음
- 반면 2021년 이커머스 식품류 유통채널 규모는 3억 3,930만 달러로 전체 시장의 2.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5년간 성장률은 33.3%로 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채널 비중이 크진 않으나 간단한 입점 절차, 낮은 커미션, 배달 지원 등 이유로 많은 공급사들이 진출하고 있음. 대표적인 온라인 쇼핑몰은 Shopee, Alibaba, Lazada임
- 콜드체인 주요 유통 품목은 육류(24%), 어패류(19.5%), 채소·과일(19.3%), 낙농품(13.7%) 크게 4가지로 구분되며, 이외에 편의식품 등 일반 가공식품 일부도 저온 보관이 필요함

1) 기준 환율 : 1달러 = 1,300원, 1링깃 = 295원

2. 말레이시아 콜드체인 인프라

- 말레이시아 현지 저온 창고는 온도의 범주에 따라 ①급속 냉동창고 ②냉동창고 ③냉장창고 ④에어컨디션창고로 구분됨. 저온 창고 대부분은 항만 또는 항공과 인접한 자유지역(Free Zone)에 위치해 있음
- 저온 운송 형식 중 해상운송(84.51%) 및 육로운송(14.49%)은 가장 보편적인 운송방식이며 철로운송(0.86%) 및 항공운송(0.14%)은 비중이 적음
- (육로운송) : 말레이시아 전국에 걸쳐 분포되는 도로망으로 육로운송은 국내 또는 인접국으로 운송 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운송방식임
- (철로운송) : 열악한 인프라 및 긴 운송 기간 등으로 인해 활용도가 낮음
- (해상운송) : 말레이시아의 13개 주 전체는 연해와 인접해 있어 해상운송이 잘 발달되어 있음.
- (항공운송) : 총 6개의 국제공항을 보유하며, 국제공항 중에 말레이시아 최대 공항인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국내·국제 항공 화물의 74.6%가 취급됨

3. 한국산 콜드체인 수입·유통 현황

- 2021년 기준 말레이시아 농식품 전체 물동량은 1,297만 4,000톤이며, 이 중에 콜드체인 품목 물동량은 597만 800톤으로 46%를 차지함.
- 2021년 말레이시아의 한국산 콜드체인 품목 수입액은 최근 5년간 4.5% 증가한 1,906만 달러(한화 약 247억 7,280만 원)로 집계됨
- 2021년 기준 한국산 콜드체인 품목 수입액은 말레이시아 전체 콜드체인 품목 수입액의 0.3%에 불과하며, 수출국 중 33위로 나타났음. 2020년부터 팬데믹 영향으로 인해 수출 규모가 감소했으나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말레이시아로의 콜드체인 수출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한국산 콜드체인 품목은 주로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을 통해 말레이시아로 수출됨. 해상운송은 비용이 가장 저렴한 운송으로 대량 화물 선적 시 우선적으로 선택됨. 해상운송을 통해 수출한 후, 내륙에서 육로운송을 통해 유통업체 또는 최종소비자에 도달함. 이 경우에 클랑항이 주요 통로로 이용되고 있음
- 신선 농산물의 경우 운송 기간을 줄여 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공으로 주로 수출됨. 항공운송과 육로운송을 결합한 형태의 복합운송이 보편적임

4. 말레이시아 콜드체인 정책 및 투자

- 말레이시아 정부는 ‘할랄 산업 개발 마스터플랜 2030’을 수립하여 말레이시아를 할랄 R&D 및 혁신센터(글로벌 할랄 허브) 육성을 목표로 4단계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글로벌 할랄 시장을 약 5조 5,000억 달러 규모로 키우고자 함
- 콜드체인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은 별도 발표되지 않으나, 물류 인프라(육로·철로·수로·공로) 전반의 개선을 위한 여러 프로젝트가 실시되고 있음
- **(육로운송)** 팬 보르네오 고속도로(Pan Borneo Highway) 프로젝트는 2,000km가 넘는 말레이시아 내 최대 고속도로 프로젝트임
- **(철로운송)** 동부 해안 철도(East Coast Rail Link, ECRL)는 승용객·화물운송 서비스 프로젝트로 말레이반도 동쪽의 클란탄주 코타마루(Kota Bharu)와 서쪽의 셀랑고르주 클랑항(Port Klang)을 연결함
- **(해상운송)** 제12차 말레이시아 계획(Twelfth Malaysia Plan)의 일환으로 항만의 접근성과 수용력 등 무역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 **(항공운송)**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동남아시아 지역의 물류 게이트웨이로 성장시키기 위한 자유무역지역 확대 계획이 수립되어있음
- 말레이시아 투자개발 당국(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MIDA)은 저온물류 다변화 장려정책으로 ICCL, CCN, Saddad Resources, Gold Cold Logistics 등 저온 물류사들을 지원해왔음
- 말레이시아 국내의 민간기업들도 콜드체인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왔음
 -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두는 FGV Holdings 회사는 글로벌 농식품 기업으로 830만 링깃(한화 약 24억 4,850만 원)을 투자하여 FGV Transport Services 자회사를 설립하였음
 - 일본 Yusen Logistics의 자회사인 TASCOS는 말레이시아 콜드체인 물류 시장의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콜드체인 기업 5개사를 매수하였으며, TASCOS Yusen Gold Cold (TYGC)를 콜드체인 운영법인으로 설립하였음
 - 한국 CJ Logistics의 말레이시아 투자법인인 CJ Century Logistics 회사는 코로나19 백신 운송을 위해 콜드체인 시장에 진출하였으나, 농식품 콜드체인에 대한 투자 기록은 현재까지 없음

5. 결론

-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에 대한 현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정부도 물류 인프라 개발 및 프로세스 자동화에 투자함으로써 말레이시아 콜드체인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추세임
- 말레이시아로 한국산 콜드체인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선도 유지 기술 및 사전포장 기술 R&D가 필요함
- 말레이시아에 유통되고 있는 한국산 제품의 시장 확대를 위해 여러 방안을 동시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말레이시아 내에 콜드체인 창고, 저온 운송 수단을 포함하는 유통거점을 주요 항만 근처에 구축할 필요가 있음. 한국 정부 차원에서 한국의 물류기업을 지원하여 말레이시아 내 한국 농식품 전용 콜드체인 물류센터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음. 또는 콜드체인 시설에 투자할 초기비용이 상당히 많아 설립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의 현지 중소규모 콜드체인 기업을 인수하는 방안도 있음. 이후 한국 농식품을 수입하는 현지 유통사 또는 한국기업의 현지 법인 대상 저렴한 비용으로 창고·운송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관 비용 절감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 소매점에서 판촉전, 시식 행사를 개최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제품 소개, 시식 후 반응 조사, 구매 유치 등을 진행하여 홍보와 브랜드 인지도 향상이 필요함
- 신선 채소·과일의 경우 타국산 제품과 경쟁력을 높이도록 장기적으로 브랜드를 강화하여 반복적인 소비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 99 SpeedMart, 7-Eleven, CU, Emart24 등 편의점 판매 채널은 콜드체인 유통 구조가 잘 정비되어 있고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높으므로 편의점 채널을 활용하여 신선 농식품 구매 루트를 2선 도시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음
- Shopee, Happy Fresh, Food Panda, Grab 등 배달 앱의 신선식품 배달 서비스와의 협업을 통해 소비자 접근성과 인지도를 높이는 동시에, 아직 시장 초기 단계인 말레이시아의 온라인 구입 채널에 진입하여 시장 선점효과를 누리는 전략이 필요함